

아직 모르기에 알 수 있다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스리는 공부가 익으면 몸과 마음의 객진번뇌가 가벼워지고 편안해진 것 같지만 의식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 마치 돌로 풀을 누른 것과 같아서 오히려 생사계에 자재하지 못한 까닭에 깨닫기 전의 뒤음은 참된 의미의 뒤음이 아니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자라도 다생의 습기가 남아 있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지는 반연을 있고 망념을 없애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경계를 만나 마음이 연(緣)에 떠돌지 않는 것을 정(定)이라 하고 마음과 경계가 다 공(空)하여 번뇌가 없는 줄 비추어 불을 해(慧)라 합니다. 정과 해는 자성의 체(體)와 용(用) 두 가지 뜻을 의미하니, 공적(空寂)과 영지(靈知)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체의 작용이니 해는 정을 여의지 않고 작용의 본체이니 정은 해를 여의지 않습니다. 조계 해능 스님은 마음이 어지럽지 않음이 자성의 정이고 마음의 어리석지 않음이 자성의 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깨달아 '차단하고 비추는 것(遮照)'이 틀어 안게 되면 정이 곧 해요 해가 곧 정이며, 이것이 바로 돈오문의 정해 쌍수가 됩니다.

깨달은 자는 두 가지 문(門)으로 성품자리를 지켜나가는 자성문(自性門)과 수상문(隨相門)이 그것입니다. 자성문의 정해를 뒤음이란 '공없는 공(無功之功)'을 써서 공적과 영지를 갖추어 스스로 자성을 회복해 불도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수상문의 정해를 뒤음이란 아직 깨닫기 전의 방편인 망상집착을 다스리는 공(功)을 써서 번뇌를 끊고 고요함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과 같이 두 문(門)의 행하는 바가 각각 다릅니다. 깨달은 후에 뒤는 돈문(頓門)속에 수상문의 방편을 포함시킨 것은 점문의 하근기 수행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방편만을 취하여 길을 빌리고 의탁한 것 뿐입니다. 그 까닭은 돈문에도 근기가 수승한 이도 있지만 다생의 습기가 많이 남아있는 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번뇌가 담박하여 선(善)에서 선을 여의고 악(惡)에서 악을 여의며 팔풍(八風)에도 동하지 않고, 세 가지 느낌(즐거움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느낌) 조차 고요한 상근기는 자성의 정해를 의지하여 되어가는 대로 공적과 영지를 갖추어 조작이 없이 자연스럽게 진리에 결합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뒤야 할 할 것이 남아있지 않아 수상문의 방편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병이 없으면 약을 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문득 깨달았으나 경계와 인연을 대하여 망념이 일어나고 혼침과 산란에 떠돌려 본래의 공적영지를 잃어버리는 지는 곧 수상문의 정해를 빌려서 할 일 없는 지경에 들어갈 때까지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다스리는 공부를 빌려 잠시 습기를 조절하나 번뇌가 본래 공한 것을 이미 깨달았으므로 더 이상 점문의

오염된 수행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돈문의 상근기는 스스로의 성품에 의지하여 되는 대로 맡겨 뒤음이 불요하나(頓門箇者 依自性門 任運亡功) 점문의 하근기는 일어나는 대상을 따라 나아가 다스리며 수고롭게 뒤는(漸門 劣機 趣隨相門 對治勞功).”

경전에 의하면 만약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서 그 곳 중생들에게 보시하여 중만함을 얻게 하고, 그 곳 중생들을 교화하여 성위4과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를 얻게 하면 그 공덕이 한량없으나 한 번 밥 먹을 동안에 부처님의 심인법(心印法)을 바로 생각하여 얻은 바의 공덕만 같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선과 악의 바탕이 본래 공한 줄을 모르고 굳게 앉은 채 몸과 마음을 눌러 조복하기를 돌로 풀을 누르는 것과 같이 함으로써 마음 뒤음을 삼으면 이는 크게 미혹한 것입니다. 번뇌를 끊으려는 생각도 도적입니다. 다만 살도음(殺盜淫)이 성품으로부터 일어나는 줄 자세히 관(觀)하면 일어나지 않아지는 까닭에 다시 끊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망념이 일어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알아차림이 더딜까 두려워 하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조사들이 놓고 깨달았지 들고 깨달은 경우는 드뭅니다. 범부들은 모두 마음이 있어서 부처가 되려 하고 법을 깨닫고자 하며 해탈하여 3계를 벗어나고자 합니다. 3계가 무엇입니까? 한 생각 탐내는 마음이 욕제이고, 한 생각 성내는 마음이 색제이며, 한 생각 어리석은 마음이 무색제로서 바로 마음 안의 살립살이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탐진치를 여의지 않은 채 구하는 마음, 들고 있는 마음으로는 어긋납니다. 법은 문자도 여의고 인(因)에도 속하지 않고 연(緣)에도 있지 않으며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고 입만 뻥긋해도 벌써 어긋나 버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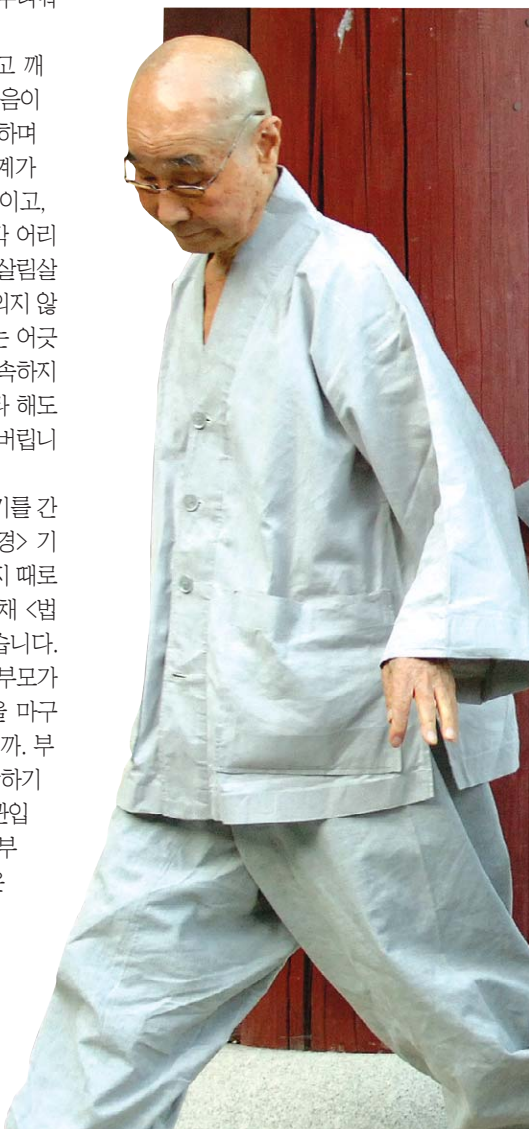
옛적에 한 처녀가 훌륭한 배우자 만나기를 간절히 염원하던 중 부모의 권유로 <법화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열심히 했던지 때로는 밥 먹는 것도 잊고 잠자는 것도 잊은 채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염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인기가척이 이상해서 부모가 방문을 살짝 열어 보았더니 딸이 경전을 마구 던지고 일부는 밟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깜짝 놀라서 까닭을 물으니, 딸이 말하기를 "반야가 반야를 밟고 있는데 무슨 상관입니까?"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불자였던 부모는 선지식을 찾아갔고 자초지종을 들은 선지식은 다른 얘기는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부모가 "깜깜한 밤중에 까마귀 소리를 들으니 자기 전의 어머니가 그림자"는 딸의 계승을 전했습니다. 까마귀 소리는 삼매 속에서 들려온 자신의 독경소리를 의미합니다. 딸이 깨닫기 일보직전에 이르렀

음을 직감한 선지식은 그녀를 데려오게 하여 몇 마디 일러 주었고 딸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방편이든지 열심히 해야 합니다. 화두를 들어도 열심히 들고 일체를 놓아도 철저하게 놓으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요즈음 수행자들 가운데 입으로는 도(道)를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퇴굴심(退屈心)을 내어 범부는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불법을 배우지만 의심이 많아서 정법을 흐려놓으니 자신뿐 아니라 남까지 그르치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한 자는 영영 깨칠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스스로의 마음이 부처임을 믿지 않고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두지 아니하면 부처 되는 종자를 끊은 까닭에 점점 더 멀어집니다. 지혜로운 자가 보물 있는 곳을 알고도 찾지 않은 채 가난함을 원망해서야 되겠습니까? 만약 보물을 얻고자 한다면 몸종아리를 포함한 오온(五蘊)이라는 착각을 모두 내려 놓으십시오.

글 박지원 기자, 사진 박재원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18> 대은 김태흠 대선사

대은 스님은 우리나라 최고의 일등 포교사다. 조계사에서 북과 장구를 치고 파고다공원까지 오면 무슨 큰 구경거리나 생긴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 온다. 그러면 스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장 연설을 하고, 마음을 계발 해주시며 정법을 흐려놓으니 자신뿐 아니라 남까지 그르치게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한 자는 영영 깨칠 기약이 없습니다.

스님은 1889년 강화도에서 태어나 1905년 월인 보계산 심원사에서 득도하고, 법주사 강원에서 이력을 마친 뒤 일본에 들어가 사범대학과 종교학과를 겸하여 졸업하고 문경 대승사 강사와 법주사 조식을 지냈다. 얼굴이 검은 우유 빛에 푸르스름한 입술을 가져 마치 화교처럼 보였다. 귀

있어서 욕을 했지 뭐야. '이 빌어먹을 년이 이면도 체면도 없구나.' 하고 말아야. 그랬더니 귀부인이 이 소리를 듣고 별떡 일어나 사과를 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 에티켓을 몰라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인데 남편이 광수씨를 찾아가는 허영숙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하여 대은 스님은 만나 법이 어려운 이광수씨를 만나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필자가 스님을 처음 뵈게 된 것은 대학 시절이다. 이규범(현 태고종 총무원장) 선배와 함께 사찰 순회강연을 가다가 용인 화운사에 들리니, 당시 스님은 화운사 강사로서 60여명의 비구니

아니 같이 가세' 또 어떤 때는 '권상도 박사님 집에 가니 같이 가세'하여 따라가면 한 나절씩 문답을 하시고, 또 그 분들을 모시고 나와 선생님들께서 좋아하는 음식을 사드렸다.

스님의 나이 60이 되어 여러 걸 강사와 대학 교수, 신문사 대표를 지내면서 그 인격이 최절정에 달해 있는데도 옛 스승을 찾아 친히 뵈고 공양하고 법문을 듣는 것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화엄경> 선재동자의 구법행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학생들을 만나면 학생들과 어울리고, 청년들을 만나면 청년들과 어울려 화광동진(和光同塵), 필필 하나도 구김없이 지냈다. 어떤 절 스님이 병이 나 고생한다고 하면 양약, 한약은 말할 것 없이 만병 보충할 것까지 잔뜩 사가지고 갔다. 편잔을 들은 일도 있다.

"무엇이 맞을런지 몰라 골고루

1940년 조계사 포교사경연대회서 일등한 최고의 포교사 일본 유학시절 이광수씨 만나 공부에 큰 도움 받아

가 크고 눈이 어글어글하고 혀가 콧등까지 올라와 말을 하면 마치 마이크를 사용한 것처럼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스님의 일본 유학시절 이야기를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한번은 고향 길에 너무 살기가 힘들어 인력거를 끌었다. 그런데 하루는 관세음보살 수원즉득다라니를 외우면서, '오늘은 좀 귀하고 복 있는 사람을 만나 내 소원 성취하게 되나' 하고 있는데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온 손님이 잘 생긴 귀부인이었어. 편지봉투를 내밀며 '이 주소까지 데려 달라' 하여 내가 신이나서 인력거를 힘껏 저었으나, 산 고개를 넘으려 할 때는 숨이 차 제대로 가지 못했다. 대개 일본사람들은 가파른 고갯길을 올라갈 때는 자신도 내려 짐을 밀어주곤 하는데, 이분은 짐짝 달짝 않고

스님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순회강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쌍수로 환영하면서 확인들을 모아 강연을 하게 하였다. 운산 총무원장이 먼저 하고 나중에 내가 하였는데 매우 반응이 좋아, "하룻밤 자고 한 번 더 하고 가라"고 하여 앙코르 법문을 하게 됐다.

스님께서는 장차 들려야 할 곳을 적어 주었는데, 그 때는 사미강원이 별로 없어 서산 개심사, 계룡산 동학사, 군산 동국사, 전주 정혜사, 대전 보문학교 등 여러 곳을 적어주고, 또 그쪽에 전 화까지 해주어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았다.

얼마 뒤 서울에 올라오시면 미아리 영미암(당시 필자의 거처)에 오셔서 주무시고, 우리들이 운영하던 정혜고등공민학교에서 법문도 해 주셨다. 그리고 "오

사 왔으니 골고루 먹고 빨리 회복하시오."

누구나 보면 스승이요, 부모요, 형제요, 도반이요, 제자다. 깔깔 웃으면서 무었이고 주는 대로 거리길 없이 잠수했다. 동에 반씩, 서에 반씩, 부르는 곳 마다 빠짐없이 달려가시니 온 세상이 명자 그대로 한 집안 식구였다.

<신앙의 등불> <관음경 강화> <석가여래 일대기> <피안의 메아리> 등은 스님의 대표작이고, 불교지, 현대불교, 불교신문, 법시 등 각 불교신문 잡지에 실린 글을 모은다면 아마 수 천만 페이지에 달하는 큰 작품이 될 것이다. 언제 어디에서나 원고 청탁이 오면 그 자리에서 일필휘지로 써 보내는데, 거의 정리하는 일이 없다. 마치 거미줄 풀려나듯 큰 끝에서 안개와 구름이 일어났다.

희담석 www.jawonet.com

생명에너지의 방사력과 투과력이 탁월한 희담석 의료기, 온열매트 출시!!!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과 투과력이며, 제올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매트.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액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세탁가능)

제품구성: 희담석 매트 + 온도조절기 + 열판 (전자파가 거의 없는 무자기장선 사용)

내용물: 희담석 60% + 제올라이트(Zeolite) 40%

제품크기: ① 100cm x 50cm (사인) 가격 250,000원
② 170cm x 60cm 가격 550,000원

정신집중이 잘되는 희담석 방석

정질효과가 탁월한 희담석 찜질팩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 염주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SUUVILLA - 종합행정시스템 - Windows Internet Explorer

불교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인터넷 신개념의 온라인 종합행정 수비라

신도 등록, 템플스테이, 수련회 예약관리, 접수, 재무 회계, 통계, 분석, 자동집계 기능 등 종합행정 업무에 필요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 수비라 초기화면

· 신도등록접수

· 재무회계통계

· 접수분류계

종합행정 보상관매 실시

- ◆ 시스템 및 사용자의 제한 없음
- ◆ 데이터 이전 가능(별도 문의)

108사찰 한정 특가
250만원 **○** 130만원 (현회비별도)

신도간 생활향 커뮤니티기능을 강화한 **사찰 홈페이지 구축**

사찰의 환경에 맞는 쉽고 편리한 기능제공

- 생활향 커뮤니티 지대방
- 카페, 블로그 솔루션 무상구축
- 내마음의 법령(인터넷보시기능)무상제공
- 보안 인증 기술
- One-stop 관리자 환경 등

송광사, 용주사, 봉선사, 부석사 등 전국사찰 50여개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제공

(주)탑스컴 **불교마을** www.templevill.com

(주)탑스컴 **불교마을** (주)탑스컴

문의전화 031)965-6629, 031)965-8253 경기 고양시 화정동 967-1 한솔빌딩 1007호 불교커뮤니티포털(불교마을) www.templevill.com / 탑스컴 www.topscom.net